

“익산역, 호남권 역 중 국제철도 경쟁력 최고”

(사)대중교통포럼 ‘국제역 구축전략 연구용역’ 보고회서 밝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성 강조

호남권 철도역 가운데 익산역이 국제철도 거점역으로 편익과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익산시청에서 열린 ‘국제철도 시대에 대비한 국제역(익산역) 구축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대한교통학회와 (사)대중교통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국제고속철도가 개통돼 익산역이 거점역으로 선정된다면 광주송정역이나 목포역, 여수엑스포역 등 호남권의 다른 역에 비해 편익과 경제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하나로 지난 2015년 말 신의주에 인접한 단둥, 나진·선봉에 인접한 훈춘까지 고속철도망이 완성됐다”면서 “남북한철도가 연결될 경우 시베리아 횡단철도(TCR)

와 연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철도 거점역은 유로스타(영국-프랑스 간 해저터널을 달리는 고속열차)처럼 국경을 통과할 때 필수시설인 출입국관리시설 CIQ(세관검사, 출입국관리, 검역) 인프라를 구축한 국제철도역을 지칭한다.

익산시는 지난해 철도정책포럼을 창립하는 등 익산역을 호남권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 등 최종보고회 참석자들은 익산역 국제철도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익산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용역 최종 결과 자료집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익산역 유



지난 27일 익산시청에서 열린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역(익산역) 구축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의 익산역의 국제거점역 구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익산시 제공)

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추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국내 최장 270m ‘체계산 출렁다리’ 개통



순창군, 82억 투입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 지상 최고 높이 90m ‘아찔’...연중 무휴 운영

순창 관광개발 프로젝트의 야심작 ‘체계산 출렁다리’가 지난 27일 정식 개통됐다. (사진)

순창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체계산 출렁다리’는 국내 무주탑 현수교 중 가장 긴 270m를 자랑하며, 높이도 가장 낮은 곳이 지상으로 부터 75m, 가장 높은 곳이 90m에 이른다.

이는 섬진강 부리안 연결사업의 핵심으로 국비 34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82억여원이 투입된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다.

부대시설 공사도 모두 마쳤다. 주차장은 대형버스와 자가용 등 50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지역 농업인과 단체가 참여하는 농특산물 직판장도 운영한다.

체계산 출렁다리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연중 무휴다. 별도의 입장료나 이용료는 없다.

순창군 관계자는 “체계산 출렁다리는 관광도시 순창 건설은 물론 농업인 소득 확대에 기여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시, 흥부전 배경 인월면에 ‘흥부대박길’ 조성

고전소설 흥부전의 배경지인 남원에 탐방로가 만들어졌다.

30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흥부전의 배경지이자 흥부 출생지인 인월면과 소설 속에서 복이 들어 오기 시작했던 장소인 아영면을 연결하는 ‘흥부대박길’을 조성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흥부대박길 조성사업’을 진행, ‘고난길’, ‘희망길’, ‘고진감래길’ 등 3개 구간 14km의 탐방로를 조성했다.

이들 구간은 흥부의 고난과 기쁨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고난길은 인월면 성산리부터 인월면 자래리까지

4.65km로 꾸며졌다. 희망길은 인월면 자래리부터 아영면 갈계리까지 3.25km 구간을, 고진감래길은 아영면 갈계리부터 아영면 성리까지 6.1km다.

이들 구간에는 안내판 18개, 이정표 25개, 흥부전을 활용한 포토존 등 조형물 5개를 설치해 스토리를 부여했다.

대박길 주변의 인월면 성산마을에는 흥부 출생지 비석과 흥부가죽 조형물, 박침치네 텃밭, 서당터가 조성돼 있고, 아영면 상성마을 주변에는 흥부생가, 박꽃공원, 흥부의 모델이 된 박춘보의 묘, 흥부소공원이 들어서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가 최근 흥부전의 배경지이자 흥부출생지인 인월면과 소설 속에서 복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장소인 아영면을 연결하는 ‘흥부대박길’을 조성했다. (남원시 제공)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모든 시민에 10만원씩 군산사랑 선불카드 지급

군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우 군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3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 지원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빠른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군산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이, 소득, 중복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다음 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유효기간은 3개월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 시장은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편제 지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 세대 전체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현 시점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형의 경우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격기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며, 자의적 지급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발생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군산시 인구는 26만8542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269억원은 재난관리 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지급방식은 설정한 사용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익산시, 해외입국자 최고단계 관리 입국 즉시 자가관리업 의무 설치 등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 지원에 대한 관리를 최고 단계로 강화했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해외입국자를 위한 임시 생활 시설을 마련하고,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입소 조치를 한다.

생활시설에 입소한 입국자에게 식사와 생필품, 방역용품 등을 지급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된다.

기존 유럽과 미주지역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한해 검사를 했던 정부 방침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체계다.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즉각 검사를 진행하고, 무증상자 가운데 유럽과 미국지역 입국자는 KTX 별도 객실을 이용해 익산역까지 이동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의사고!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진료! 확대수리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 SAMSUNG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동부화재 | KOREAN KOREAN | SGI서울보증 | AXA AXA | AIG | NH농협손해보험